

## 한국과 미국 유아의 극놀이에 나타난 또래의 단계별 지지 분석\*

Scaffolding by Peers in Young Children's Dramatic Play:  
A Cross-Cultural Analysis

최석란\*\*

Choi, Suk Ran

김영숙\*\*\*

Kim, Young Sug

### ABSTRACT

This study compared Korean and American children on scaffolding by peers during dramatic play. Thirty Korean and twenty American 5-year-old kindergarteners participated. The data were analyzed by Spradly's (1980) Developmental Research Sequence (DRS), using qualitative methods.

The results showed that the categories of scaffolding (theme and communication) occurred more frequently among American children than among Korean children. In both cultures, more capable peers scaffolded children during dramatic play and were able to extend the dramatic play.

### I. 서론

놀이는 여러 문화권에서 유아 발달을 주도하는 하나의 활동으로서 사회, 인지, 정서 요소를 포함하며, 놀이를 통하여 유아는 사회적 관계를 알고 타인의 역할을 수용하며 문제 해결능력을 습득하기도 한다(Rogoff, 1990; Neuman & Roskos, 1991).

극놀이는 상상적인 상황에서 그 주제의 역할에 맞는 모방적인 언어와 행동을 통하여 사회가 장활동을 하는 것이다(Garvey, 1990). 유아는 극놀이를 통하여 직접적인 외부환경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나 독립적인 방법으로 사고를 조직하여 항상 자신의 평균 나이 이상, 일상생활에서의

\* 본 논문의 일부는 Choi, S. R. & Y. S. Kim(1997b). Quality of children's dramatic play in Korea. Paper presented at *National Association for the Education of Young Children*(Anaheim, California, USA, Nov. 12-15)에서 발표하였음.

\*\* 서울여자대학교 아동학과 부교수

\*\*\* 진주전문대학교 유아교육과 조교수

능력 이상으로 행동이 가능하므로 놀이는 유아의 근접 발달지대를 창안한다(Tudge & Winterhoff, 1993). Vygotsky는 약간의 도움으로 학습하는 잠재가능성을 유아의 근접발달지대라고 불렀으며(Rogoff, 1990) 이러한 근접발달지대는 학습과 인지발달이 일어나는 민감지역으로 유아의 잠재력 계발을 위한 단계별 지지(scaffolding) 상황이 필요하다(Tharp & Gallimore, 1988; Nicolopoulou, 1993).

인지적인 특성과 종류를 나타내는 단계별 지지(scaffolding)는 Wood, Bruner, Ross (1976)의 연구에서 처음 소개되었으며, 이 연구에서 단계별 지지자는 관심끌기, 자유감소, 방향유지, 중요 특성 표기하기, 과업과 관련된 욕구 불만 통제, 시범의 여섯가지 과정을 부모가 유아 수준에 맞추어 협력 관계를 통하여 도움을 주는 것이었다.

성인-유아간의 단계별 지지 연구결과는 과제 수행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며(Berk & Winsler, 1995) 문해 촉진 연구(Roskos & Neuman, 1993), 극놀이에서 교사의 단계별 지지 제공이 유아의 언어적 의사소통에 끼친 긍정적인 효과 연구(김영숙, 1997), 협력 문제해결 방식 등 여러 학습영역에서 효과적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Elicker, 1995).

유아의 새로운 능력은 성인 또는 능력있는 또래와의 협력관계를 통해 새로운 인지능력을 구성하며 그 다음 유아의 심리학적 과정의 일부분으로 내면화된다. 이에 성인의 단계별 지지자 역할과 함께, 보다 능력있는 또래와의 단계별 지지자 역할도 중요하다(Neuman & Roskos, 1991; Forman & Minick & Stone, 1993; Berk & Winsler, 1995). 이와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Cannella(1993)는 인지적 기술과 협상의 관련 연구에서 보다 능력있는 또

래와의 상호작용이 학습수행에 많은 도움을 주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Tudge(1992)는 과제 학습에서 보다 능력있는 또래와의 협력체계는 능력이 적은 유아의 학습을 효율적으로 도와주었다고 제시하였으며 Haight와 Miller(1993)의 연구는 극놀이 확장을 위해서 보다 능력있는 또래와의 상호작용이 요구된다고 하여 또래 역할의 중요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Berk & Winsler(1995)는 단계별 지지와 관련한 대부분의 연구는 성인-유아 상호작용의 조별 형태로 이루어졌으나 같은 기본원리를 가지고 소그룹 또는 대그룹의 교수적 환경에도 응용할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이에 유아-유아 상호작용간의 소그룹에서 이루어지는 자연스런 극놀이에서 또래의 단계별 지지자(scaffolder)를 연구하여 능력있는 또래 역할에 대한 경험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최근의 놀이 연구는 놀이 행동이 나타나는 사회맥락과 관련한 비교문화 연구가 증가하는 추세이다(Corsaro & Schwartz, 1991; Choi, 1994; Choi & Kim, 1997b). 비교문화 연구는 전반적인 발달에 대한 평가 뿐 아니라 한 개체가 각각 다른 생태학적, 사회학적 환경에서 어떻게 자기표출을 해나가는지 단서를 제공한다. 대부분 이들 연구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놀이 자체를 분리 연구하기보다는 그 사회맥락과 관련한 생태학적 입장에서 논의하고 있다(Slaughter & Dombrowski, 1989).

Corsaro와 Schwartz(1991)의 미국과 이탈리아 교사의 놀이 개입에 관한 비교연구로서, 미국 교사의 개입전략은 그룹내의 개인에 중점을 두는 반면, 이탈리아는 개인보다는 그룹중심으로 나타났다. Choi(1994)는 한국-미국 유아간의 놀이행동 비교에서 미국 유아의 극놀이는 일반적으로 많이 행해지고 있으나 한국 유아 및 한

국제 유아들에게는 드물게 발생하는데 그 이유를 한국부모 또는 교사가 충분한 시간과 놀이 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했다. Choi와 Kim(1997a)은 한국과 미국 유아의 극놀이 특성을 비교연구한 결과, 놀잇감, 놀이 친구, 교사와 관련한 사회맥락적 요인은 두 나라 사회문화적 배경과 관련이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Vygotsky(1987)는 인지발달이나 모든 행동은 사회맥락과 관련있으므로 놀이행동은 사회맥락내에서 설명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놀이 연구는 사회맥락과 분리할 수 없음을 의미하며 그 사회문화 특성에 맞는 놀이연구의 필요성도 언급하고 있다. 그리하여 사회맥락을 고려한 극놀이 상황에서의 또래의 단계별 지지와 관련한 선행연구의 제한으로 이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은 제기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회문화적 배경이 다른 한국과 미국 유아를 대상으로 자연 상황의 극놀이 분석을 통하여 또래의 단계별 지지는 어떻게 놀이를 전개, 확장시키는 지에 대해 다문화적 차원에서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본 연구에서 제기된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과 미국 유아의 극놀이에서 또래의 단계별 지지 범주와 그 유형은 어떠한가?

둘째, 한국과 미국 유아의 극놀이에서 또래의 단계별 지지는 극놀이 주제 확장과 어떻게 관련되며 그 유형은 어떠한가?

셋째, 한국과 미국 유아의 극놀이에서 또래의 단계별 지지는 의사소통 확장과 어떻게 관련되며 그 유형은 어떠한가?

## II. 연구방법

본 연구는 Spradley(1980)의 기본원칙에 근거하여 첫째, 참여관찰과 면접의 질적 접근을 하였으며 둘째, 현장노트기록으로서, 연구자에 의해 각 놀이 에피소드에 나타난 놀이환경, 놀이자, 놀이상황, 언어적 상호작용 등을 기록하였다. 참여관찰을 위해서는 비디오 카메라와 무선 마이크가 사용되었다.

질적연구로서 접근하는 이유는 통계적 유의성보다는 실제적인 유의성 때문이다. 즉 한국과 미국 유아의 극놀이 상황의 언어를 통하여 또래의 단계별 지지와 관련된 연구문제를 좀 더 주관적인 차원에서 분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 1. 연구대상

본 연구대상은 한국 유아 30명(남아, 15명;

여아, 15명)과 미국 유아 20명(남아, 10명; 여아 10명)이며 연령은 모두 만 5세 학급이다. 중류층 이상의 유아가 다니는 두 유치원은 대학 부속 유아교육기관으로서 유아중심에 의한 교육을 실시하며 한국의 경우 반일제 프로그램이며 미국은 종일제 프로그램이다.

### 2. 분석기준

본 연구에 사용한 분석기준은 다음과 같다. 먼저 단계별 지지는 Wood, Bruner, Ross(1976)와 Schetz, Stremmel(1994)의 연구에 사용한 단계별 지지 과정을 김영숙(1997)이 예비연구를 통해 수정, 극놀이 연구에 적용한 관심끌기, 언어적 개입 및 제안, 직접적 지시, 적합한 표현에 관심표시, 극놀이 진행을 위한 조절

및 도움 철회, 모델 제시의 여섯가지 유형을 본 연구에 그대로 사용하였다.

주제확장에 대한 증거는 놀이 주제와 관련한 여러 문헌을 참고로 하였다(Corsaro, 1986; Gnc, 1993; haight & Miller, 1993). 주제확장은 놀이가 진행되는 가운데 단계별 지지자가 아이디어나 정보를 소개하여 극놀이에 새로운 요소를 통합시키거나 언어, 비언어적인 모델을 제시하여 실제 그 놀이 주제를 확장시켜나가는 놀이 행동이다. 본 연구분석 결과, 또래의 단계별 지지와 주제확장과 관련된 내용은 아이디어 소개, 놀이 유지 및 전개, 모델제시(언어 및 비언어)의 세 범주로 나왔다. 에피소드내에서 주제확장의 범주에 해당되는 하위요인을 각각 세어서 그 횟수로 측정하였다.

의사소통은 Garvey(1993)와 Cosaro(1986)에 의해 제시된 의사소통 전략을 수정, 발췌하여 사용하였다. 의사소통은 가장 상황 설명(가장하는 역할에 맞게 언급하는 표현이나 상상적 상황으로서 가장 설명하는 것), 실제 상황 설명(실제적 상황에 대해 이유나 변명, 정당함을 내세워 설명하는 것), 가장 행동 제의(어떤 표현에 대한 반응이나 이의를 제기하면서 명확하게 그렇게 하는 척이라고 제의하는 것), 관심끌기(관심을 끌기위해 사용되는 말씨), 준언어 단서 표현(말의 억양을 바꾸거나 목소리에 감정을 주는 것 또는 몸짓언어), 지시적 표현(극놀이 친구의 행동을 통제하기 위해 사용되는 표현으로서 주로 극놀이 범위내에서 발생)으로서 각 극놀이의 에피소드내에 해당되는 하위요인을 각각 세어서 그 횟수로 측정한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사용한 에피소드 기준은 McLoyd(1980)에 의해 정의된 것으로 에피소드 길이는 한 극놀이 에피소드 내에서 대화가 전환되는 횟수로서 짧은 에피소드는 최소한 6번의

대화전환에서 긴 에피소드는 13번 이상의 대화 전환을 포함한다.

### 3. 연구절차

본 연구를 실시하기 전에 예비연구로서 극놀이가 많이 발생하는 영역을 2-3주에 걸쳐 관찰하였다. 예비연구 후 극놀이가 많이 발생하는 영역에서 참여관찰을 시작하였다. 1주일에 3회 약 30분에서 1시간 동안 약 8주 동안 실시되었다. 한국 유아의 관찰은 1997년 4월 21일부터 6월 28일까지, 그리고 미국은 1995년 3월 21일부터 5월 25일까지 진행되었다. 학급에서 연구자의 위치는 참여관찰자로서 유아의 극놀이가 많이 발생하는 영역에서 관찰을 하였다.

### 4. 자료분석

질적연구의 신뢰도는 양적연구의 측정이나 관찰처럼 같은 내용이 반복 될 것이라고 전제하지 않는다(Spradly, 1980; LeCompte & Goetz, 1982). 이에 본 신뢰도는 연구자의 학문적 배경과 판단을 중점으로 동일 자료에 대해 편협되지 않은 관점을 의미하는 것으로 자료 내용을 가능한 유아 놀이 맥락에서 해석하도록 유의하였다.

자료분석절차는 첫째, 비디오 테이프를 통해 두 나라의 극놀이 대화내용의 사본 작성 및 현장 기록 노트의 내용 검토와 대화 사본에서 본 연구의 분석 기준에 맞는 에피소드를 선정하는 것이다.

둘째, 효율적인 자료정리를 위하여 연구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에피소드 사본을 분류하였다. 극놀이 에피소드 내용을 분석기준에 적용하여 분류한 자료를 Spradley(1980)의 Developmental Research Sequence (D.R.S.)방법에 의해 도

메인(Domain)분석을 하였다. 도메인은 질적 연구 분석의 기본단위로서 공통적으로 갖고있는 의미의 특성으로 구성되어있다. 도메인은 3가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것은 대표범주(cover terms), 의미 관계(semantic relationship), 그리고 하위범주(included terms)이다. 본 연구에서 대표범주는 연구자가 정한 분석 기준이며 하위범주는 유아의 극놀이를 관찰한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다음 <표 1>은 도메인 분석의 예이다(Spradley, 1980).

셋째, 도메인이 성립된 후 효율적인 자료처리를 위해 연구문제와 관련하여 내용을 더욱 축소시킨 다음, 연구문제의 분석 기준에 해당되는 대화내용을 에피소드에서 각각 세어서 그 횟수를 기록한다. 그리고 극놀이 대화내용을 통하여 범주들 간의 관련성에 대해 상호관계 탐색 및 유형

<표 1> 도메인 분석의 예  
(단계별 지지의 유형 중 직접적 지지)

대표 범주	의미 관계	하위 범주
직접적 지지	-는(은) 일종의	· 많은 가장 역할을 잘못하는 유아에게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는 것 · 극놀이 중 머뭇거리는 유아에게 구체적인 언어로 지시하는 것 · 놀이 주제와 관련된 방향으로 직접 지시하면서 놀이 확대시키는 것

(patterns)을 찾는다. 마지막으로 극놀이 맥락을 고려한 상황에서 이론적 문헌과 두 나라의 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해석한다.

### III. 결과 및 해석

연구문제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한국과 미국 극놀이의 에피소드 빈도는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에피소드 빈도

	한국	미국
유아	7(26.92)	16(72.72)
교사 개입	19(73.07)	6(27.27)
계	26(100.00)	22(100.00)

N(%)

<표 2>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한국의 에피소드는 교사의 개입이 많았으며, 반면 미국은 유아 참여가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유아들만이 참여한 에피소드가 그 분석 대상이다.

#### 1. 또래의 단계별 지지

연구문제 1의 또래의 단계별 지지 범주를 알아보기 위해 에피소드 대화의 단계별 지지 빈도와 그 대화 예문 그리고 단계별 지지의 범주들 간에 연계성과 상호관계를 탐색하여 나타난 유형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한국과 미국의 극놀이에 나타난 또래의 단계별 지지 범주의 빈도는 <표 3>과 같다.

에피소드 대화를 분석한 결과, 우선 전체적인 단계별 지지 범주의 합계는 한국의 경우 33회, 미국은 58회로서 미국이 한국보다 많았다. 세부적인 것을 살펴보면, 한국은 '직접적 지지'('빨리해': 한국/미장원 놀이를 하는 도중, 손으로 치며)가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미국은 '적합한

〈표 3〉 단계별 지지의 빈도

단계별 지지범주	관심끌기	언어적개입 및 제안	직접적 지시	적합한 표현에 관심표시	극놀이 진행을 위한 조절 및 도움 철회	모델 제시	계
한 국	1 (3.03)	6(18.18)	12(36.36)	4(12.12)	4(12.12)	6(18.18)	33(100)
미 국	7(12.06)	8(13.79)	8(13.79)	20(34.48)	7(12.06)	8(13.79)	58(100)

N(%)

표현에 관심표시' ('그래, 너 심장은 멎었어' : 미국/ 병원놀이에서; 한 유아가 내 심장은 멎추었다 라고 말하자)가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나머지는 거의 비슷한 비율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한국의 '직접적 지시'가 미국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미국은 '적합한 표현에 관심표시' '관심 끌기'에서 한국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한국의 경우 '직접적 지시'는 12회인 반면 '관심 끌기'는 1회로서 차이가 많았으며, 미국은 '적합한 표현에 관심표시'의 20회를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횟수가 비슷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연구자들에 의해 관찰된 두 나라 단계별 지지의 범주간 연계성과 상호관계를 탐색한 결과 공통적으로 나타난 유형이 있었다. 그것은 단계별 지지자들은 "소극적인 유아들에게 단계별 지지를 제공" 했으며 "알고 있는 지식이나 아이디어 제공" "구체적인 사물을 지적하면서 상황에 맞는 가장 대화"를 하였으며 이중 특히 관심끌기, 직접적 지시, 모델 제시와 관련한 단계별 지지에서는 "큰 목소리로 표현" "명령형 대화를 주로 사용" "동작으로 시범 보이기" 등의 유

형을 관찰할 수 있었다. 즉 단계별 지지자들에게 나타난 유형은 "지식이나 아이디어" "동작" "언어"와 관련한 것이었다.

요약하면 전체적인 단계별 지지 범주의 합계는 미국이 한국보다 많이 나타났다. 그리고 한국의 '직접적 지시'는 높게 나타났으며, 미국은 '적합한 표현에 관심표시' '관심끌기'에서 높게 나타났다. 극놀이에서 나타난 또래의 단계별 지지 유형은 '지식이나 아이디어' '행동' '언어'와 관련한 것이었다. 이것은 또래로서 단계별 지지자는 자신이 갖고 있는 지식이나 아이디어를 언어 및 비언어적인 가장 표현을 통하여 소극적인 유아에게 제공하여 협동할 때 극놀이는 더욱 확장되어 단계별 지지의 의미가 나타나는 것이라고 보겠다.

## 2. 단계별 지지와 주제확장

한국과 미국의 극놀이에 나타난 또래의 주제 확장 범주의 빈도는 〈표 4〉와 같다.

〈표 4〉 주제확장 범주

주제확장범주	아이디어 소개	놀이 유지 및 전개	모델제시 (언어 및 비언어)	계
한 국	5(33.33)	6(40.00)	4(26.66)	15(100)
미 국	10(32.25)	13(41.93)	8(25.80)	31(100)

N(%)

〈에피소드 대화를 분석한 결과, 우선 전체적인 주제확장 범주의 합계는 한국의 경우 15회, 미국은 31회로서 미국이 한국보다 많았다. 도메인 분석 결과 주제확장은 아이디어 소개, 놀이 유지 및 전개, 모델제시(언어 및 비언어)의 세 범주로 분류되었다. 주제확장 범주의 빈도는 공통적으로 놀이 유지 및 전개, 아이디어 소개, 모델제시(언어 및 비언어)의 순서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한국과 미국의 극놀이에 있어서 또래의 단계별 지지는 극놀이 유지에 필요한 주제 확장에 많은 역할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다음 예문은 단계별 지지자의 역할이 극놀이 주제확장과 많은 관련이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중략 ...)

여 아 : (도널드 인형을 들고) 앉으세요.

아이들 : (표를 들고) 표 바꿔주세요. 표 바꿔 주세요

여 아 : (인형을 들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남 아 : (인형을 들고 밖으로 나와 장난치는 유아를 보며) 야! 나오지마. 빨리 시작해.

여 아 : (인형을 들고) 오늘의 연극은 미키예요.

남 아 : (무대로 가서는 여아에게) "오늘의 연극은 미키와 도널드입니다" 그렇게 말해야지.

여 아 : (인형극 무대뒤로 올라간다.)

남 아 : (인형극 무대에 유아 얼굴이 보이고 인형이 안보이자) 그렇게 하면 안되, 사람이 안 보여야지. 인형만이 안 보여야지...

(계속)

인형극놀이 중에서 -한국-

이 대화는 한국 유아의 인형극놀이 중의 일부이다. 손님 역할을 하고 있던 단계별 지지자(남아)는 '인형극 무대 밖'으로 나오려는 유아를 나오지 못하게 하고 '무대 안'으로 들어가게 하였다. 그리고 오늘의 연극은 '미키'예요 라고 하는 것에 대해 '미키와 도널드'라고 침언까지 해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인형극 무대에서 유아

(인형을 조종하는 유아) 얼굴이 많이 보이고 인형이 잘 안보이자 '사람이 안보여야지. 인형만이 안보여야지' 라고 하였다. 이처럼 단계별 지지자는 유아와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하여 유아(인형을 조종하는 유아)들을 '인형극 무대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고 '인형극 무대 안'에서 놀이 주제와 관련하여 인형극 놀이를 더욱 '가장' 하여 극놀이를 전개, 유지해간다.

그리고 연구자들에 의해 관찰된 한국과 미국의 주제확장의 범주간 연계성과 상호관계를 탐색한 결과 주제확장에서 나타난 또래의 단계별 지지의 공통적인 유형이 있었다. 그것은 '단계별 지지자 자신'과 '친구'와 관련된 두 가지로서, 먼저 '단계별 지지자 자신'과 관련된 사항은 '능동적 태도'와 '뛰어난 언어능력'이었다. '친구'와 관련한 것은 '정보 공유'와 '상호작용을 통한 협동'이었다.

요약하면 전체적인 단계별 지지와 관련한 주제확장의 범주는 미국이 한국보다 많이 나타났으며, 한국과 미국 모두 공통적으로 놀이 유지 및 전개, 아이디어 소개, 모델제시(언어 및 비언어)의 순서로 나타났다. 주제확장에서 나타난 또래의 단계별 지지의 공통적인 유형은 '단계별 지지자 자신'과 '놀이친구'였다. 이것은 또래로서 단계별 지지자가 능동적인 태도로서 친구와 상호작용하여 놀이 내용을 공유할 때 놀이 주제는 더욱 확장되어 단계별 지지의 의미가 나타나는 것이라고 보겠다.

### 3. 단계별 지지와 의사소통전략

한국과 미국 유아의 극놀이에 나타난 대화를 분석한 결과, 의사소통의 빈도는 〈표 5〉와 같다.

에피소드 대화를 분석한 결과, 전체적인 의사소통 범주의 합계는 한국의 경우 59회, 미국은

109회로서 미국이 한국보다 많았다. 도메인 분석 결과 의사소통확장의 빈도는 한국과 미국이 공통적으로 '가장상황설명' 이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그 다음이 '실제상황설명' 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미국은 '가장상황설명' 의 비율이 74.31%를 나타내었다.

전반적으로 한국과 미국 또래의 단계별 지지는 극놀이 유지에 필요한 의사소통 중에서 특히 '가장상황설명' 확장에 많은 역할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다음 예문은 단계별 지지자의 역할이 극놀이 의사소통 확장과 많은 관련이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중략)

남아1 : (모래장에서 부드러운 모래를 체에 쳐서 걸른 다음 바구니에 담고는 일어선다) 요  
술모래 사려!

요술모래 살 사람!

여아1 : 나!

남아1 : (여아 손에 한 줌의 모래를 쥐어주면서)  
자. 여기... 됐어. 가져가

여아2 : 나도!"

남아2 : 요술모래 주세요!

남아1 : 자. 여기...

남아2 : (모래를 한참 보더니...) 이걸 요술모래 아  
니야!

(모래를 던져버린다)

남아1 : (남아 1를 따라가며...) 그 모래는 말야...  
만약 너가 날고 싶으면 날 수 있게 해줘!"  
그리고... 음... 음... 넌 날개를 가질 수 있

어! 넌 날 수 있는 날개를 가질 수 있어!

(계속)

요술모래 놀이 중에서 -미국-

이 대화는 미국 유아의 요술모래 놀이중의 일 부분이다. 바깥 모래영역에서 발생한 이 놀이를 관찰한 결과, 단계별 지지자(남아)는 체에 거른 부드러운 모래를 바구니에 담아 요술모래를 파는 역할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놀이를 시작하였다. 단계별 지지자는 평범한 '모래'를 '요술 모래'로 변형함으로써 이 변형된 '요술모래'에다 새로운 의미와 극적 행동을 나타내는 '가장상황 설명'의 의사소통을 통하여 놀이에 적합하게 접목시켜나가기 시작했다. 놀이가 진행되는 가운데 단계별 지지자의 의사소통확장의 계기가 된 다른 친구와의 상호작용이었다. "요술모래가 아니라고 하는" 다른 친구의 말에 단계별 지지자는 '날개'를 가지고 날 수 있는 가장상황을 설명하는 의사소통확장을 통하여 더욱 상상의 요소를 더한다. 앞의 예문 대화는 지면상 모두 실지는 못했지만 단계별 지지자는 내일 아침에 조그만 날개가 돋을 것이라고 '가장상황'을 설명하면서 날개를 달고 나르는 동작과 함께 계속 다른 유아들에게 요술모래를 팔았으며 유아들은 서로 사려는 가운데 놀이는 진행되어갔다.

그리고 연구자들에 의해 관찰된 한국과 미국 의사소통의 범주간 연계성과 상호관계를 탐색한 결과 의사소통확장에서 현저하게 나타난 또래의

〈표 5〉 의사소통범주

의사소통 범주	가장상황 설명	실제상황 설명	가장행동 제의	관심끌기	준언어화 단서	지시적 표현	계
한국	31 (52.54)	12 (20.33)	4 (6.77)	5 (8.47)	2 (3.38)	5 (8.47)	59 (100)
미국	81 (74.31)	11 (10.09)	5 (4.58)	4 (3.66)	5 (4.58)	3 (2.75)	109 (100)

N(%)



단계별 지지의 공통적인 유형이 있었다. 그것은 '변형' 으로서 '사물' '상황' '동작' '언어' 에 대한 변형이 주종을 이루었다. 단계별 지지자가 사물에 의미를 부여하여 '변형' 시키는 능력은 '가장상황설명' 의 의사소통을 더욱 확장시켰는데 주로 이러한 '변형' 은 '사물' 과 '상황' 에 대하여 그들의 '동작' 과 '언어' 로서 사회적 상호작용하여 표현되어졌다.

요약하면 전체적인 단계별 지지와 관련한 의사소통의 범주는 미국이 한국보다 많이 나타났

으며, 한국과 미국 공통적으로 '가장상황설명' '실제상황설명' 의 순서로 많이 나타났다. 의사소통 확장에서 나타난 또래의 단계별 지지의 공통적인 유형은 '사물' '상황' '동작' '언어' 에 대한 변형이 주종을 이루었다. 이것은 단계별 지지자가 그 놀이에 맞는 가장상황의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사물과 상황에 의미를 부여하여 '동작' 과 '언어' 로서 '변형' 시킨 다음, 친구와 상호작용하여 더욱 의사소통은 확장되면서 단계별 지지의 의미가 나타나는 것이라고 보겠다.

####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문화적 배경이 다른 한국과 미국 유아를 대상으로 자연 상황의 극놀이 분석을 통하여 또래의 단계별 지지에 따라 어떻게 극놀이 과정에 개입하여 놀이를 전개시키는지에 대해 다문화적 차원에서 비교분석하는 것이다. 질적 방법으로 접근한 연구의 분석결과를 논의 해보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결과, 유아만이 개입한 전체적인 놀이 에피소드 합계와 단계별 지지, 주제확장, 의사소통의 범주에서 모두 미국이 한국보다 많았다. 그리고 단계별 지지와 주제확장, 의사소통 범주와 관련하여 범주간 연계성과 상호관계를 탐색한 결과, 한국과 미국 유아의 극놀이에서 단계별 지지자에게 나타난 공통적인 유형은 '지식이나 아이디어' '단계별 지지자 자신' 과 '놀이친구' 그리고 '사물' '상황' '동작' '언어' 에 대한 '변형' 과 관련한 것이었다.

본 연구결과는 극놀이 확장을 위해 능력있는 또래와의 상호작용이 요구되며 과제학습을 통하여 능력있는 또래와의 협력체제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덜한 유아들에게 효율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한 선행연구결과를 지지한다고 하겠다(Tudge, 1992; Haight & Miller, 1993; Cannella). 또한 능력있는 또래와의 다양한 극놀이 상황은 에피소드 지속에 필요한 새로운 어휘나 표현 등의 언어적 능력을 향상시킨다는 Ervin-Tripp(1991)의 연구, 극놀이에서 능력있는 또래의 개입은 의사소통 향상을 가져온다고 한 Haight와 Miller(1993)의 연구와도 부합한다고 볼 수 있겠다.

한국과 미국 유아의 극놀이에서 유아만이 개입한 전체적인 놀이 에피소드 합계 뿐 아니라 본 연구문제와 관련한 단계별 지지, 주제확장, 의사소통의 범주에서 모두 미국이 한국보다 많았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과 미국 유아간의 놀이행동을 비교한 것으로 특히 미국 유아의 극놀이는 일반적으로 많이 행해지고 있으나 한국 유아 및 한국계 유아들에게는 드물게 발생하는데 그 이유를 한국부모 또는 교사가 충분한 시간과 놀이자료를 제공하지않은 것으로 보고한 Choi(1994)의 연구와 맥락을 같이한다고 보겠다.

그런데 단계별 지지 범주에서 한국의 경우 미

국보다 직접적 지시가 아주 높게 나타난 결과에 대해 비교문화적으로 뚜렷하게 부합되는 연구결과가 부족하여 극놀이와의 관련 영향을 해석하기에는 본 연구결과로서 미흡하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수집한 심층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Forman, Minick, Stone(1993)은 또래들은 협동관계를 통하여 정신적인 기능을 촉진시키면서 서로 근접발달시대(Vygotsky, 1978)를 제공한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한국과 미국의 단계별 지지자들이 동작이나 언어로서 변형시킨 놀이 내용을 참여 친구와 상호작용하여 공유할 때 놀이는 더욱 촉진, 확장된 본 연구 결과는 극놀이 연구에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보겠다.

한편 성인의 단계별 지지는 유아의 수준과 능력을 고려하여 주위환경을 구조화하면서 유아의 자기 조절 능력을 최대화시켜 과업수행을 할 때까지 단계별 지지를 조절한다. 그리하여 본 연구 관찰을 통하여 알 수 있었던 것은 또래의 단계별 지지가 성인과 같이 조직적으로 구조화되거나 조절을 하면서 참여 친구들에게 제공될 때 극놀이는 더욱 확장되었다. 이와 반대로 분석대상에서 제외된 놀이 대화 대부분의 경우가 상황에 맞지 않게 개입하여 친구의 호응도가 약하거나 상호작용이 부족하여 놀이가 짧게 끝난 경우이다. 그리하여 구조화된 상태와 그렇지 않은 또래의 단계별 지지에 대한 유아 반응을 체계적으로 연구하여 능력있는 또래들이 능력이 덜한 또래들의 수준과 능력을 고려할 수 있는 자기 조절력과 관련한 후속 연구도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는 자연 상황의 극놀이를 통하여 또래의 단계별 지지를 비교 분석한 질적연구이다. 본 연구를 통하여 느낀 어려움은 주어진 극놀이 맥락과 관련하여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고, 방대한 양의 자료를 어떻게 해석하여 질적연구의 특성을 반영시킬

것인가 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질적연구는 양적인 것 보다 해석을 필요로 하는 주관적인 현상으로서 연구자의 신념이 그 바탕을 이루어 자연 환경에서 일어나는 것을 관찰하는 것이기에 본 연구자들은 자연적 극놀이 상황에서 유아들의 놀이를 관찰하고 그 과정에 나타나는 놀이 경험을 연구문제와 관련하여 극놀이 맥락안에서 해석하여 의미를 끌어내려고 노력하였다.

이상과 같은 연구를 통하여 유아교육현장의 극놀이에서 또래의 단계별 지지에 관한 비교문화 연구 결과에 따른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과 미국 또래의 단계별 지지는 미국이 한국보다 많이 나타났다. 그리고 한국의 '직접적 지시'가 높게 나타났으며, 미국은 '적합한 표현에 관심표시' '관심표기'에서 높게 나타났다. 극놀이에서 나타난 또래의 단계별 지지 유형은 '지식이나 아이디어' '행동' '언어'와 관련한 것이었다.

둘째, 한국과 미국 또래의 단계별 지지는 주제확장과 관련하여 놀이 유지 및 전개, 아이디어 소개, 모델제시(언어 및 비언어)의 세 범주로 나타났다. 주제확장에서 나타난 또래의 단계별 지지의 공통적인 유형은 '단계별 지지자 자신'과 '놀이친구'였다.

셋째, 한국과 미국 또래의 단계별 지지는 의사소통 확장과 관련하여 가장상황 설명, 실제상황 설명에서 아주 많이 나타났으며, 의사소통 확장에서 나타난 또래의 단계별 지지의 공통적인 유형은 '사물' '상황' '동작' '언어'에 대한 변형이었다.

지금까지 살펴본 연구결과와 제한점에 따른 후속연구에 도움을 주고자 다음과 같이 몇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결과와 능력있는 또래의 단계별 지지는 극놀이를 더욱 확장시켰다. 유아교육현

장에서 현실적으로 교사 업무는 극놀이에 많은 관심을 두기는 어려울 것이다. 특히 한국의 경우, 단계별 지지자로서의 또래 역할과 효율적인 놀이 개입방법의 지도방안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겠다.

둘째, 한국과 미국의 단계별 지지자 모두 친구들과 상호작용하여 능동적인 태도로서 극놀이를 확장시켜나간 결과를 미루어 볼 때 유아교육 현장의 다양한 학습 영역에서 연령과 집단구성을

을 고려한 또래의 단계별 지지 활용 방안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셋째, 유아는 또래와의 상호작용 뿐 아니라 교사, 부모와의 다양한 단계별 지지도 필요할 것이다. 놀이 외 다양한 영역에서 부모, 교사, 또래의 단계별 지지의 유형과 이에 대한 유아의 반응을 관련시킬 수 있는 협동관계 연구는 사회상호작용적 관점에서 유아교육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리라고 본다.

### 참고문헌

- 김영숙(1997). 극놀이에서 교사의 단계별 지지가 유아의 언어적 의사소통에 미치는 효과.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Berk, L. E. & A. Winsler(1995). *Scaffolding children's learning: Vygotsky and early childhood education*. Washington, DC: NAEYC.
- Cannella, G. S.(1993). Learning through social interaction: shared cognitive experience, negotiation strategies, and joint concept construction for young children.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8, 427-444.
- Choi, S. R. (1994), "Play behavior of Korean children: A cross-cultural comparison", paper presented at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Child's Right to Play East Asia/Pacific Regional Conference*, Sept. Hong Kong.
- Choi, S. R. & Y. S. Kim(1997a). Pretend play of Korean and American kindergartners. Paper presented at the *Dr. Spodek symposium on early childhood education*(Urbana-Champaign, IL, USA, Nov. 9-10).
- Choi, S. R. & Y. S. Kim(1997b). Quality of children's dramatic play in Korea. Paper presented at *National Association for the Education of Young Children*(Anaheim, California, USA, Nov. 12-15)
- Corsaro, W. (1986). Discourse processes within peer culture: From a constructivist to an interpretative approach to childhood socialization. In Adler(Ed.), *Sociological studies of child development*. New York: JAI press.
- Corsaro, W. A. & K. Schwartz(1991). Peer play and socialization in two cultures-Implications for research and practice, Scales, B. & Almy, M. & Nicolopoulou, A. and Ervin-Tripp, S.(eds.), *Play and the social context of development in early care and education*. New York: Teacher College, Columbia University. 234-254.
- Elicker, J.(1995). A knitting tale: Reflections on scaffolding. *Childhood Education*,

- 29, 29-32.
- Garvey, C. (1990). *Play*.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Garvey, C. (1993). Diversity in the conversational repertoire: The case of conflicts and social pretending. *Cognition and Instruction*, 11 (3 & 4), 251-264.
- Göncü, A. (1993). Development of intersubjectivity in the dyadic play of preschoolers.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8, 99-116.
- Haight, W. L. & P. J. Miller(1993). *Pretending at home: Early development in a sociocultural context*. Albany, New York: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 LeCompte, M. D. & J. P. Goetz (1982). Problems of reliability and validity in ethnographic research.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52(1), 31-60.
- McLoyd, V.(1980). Verbally expressed modes of transformation in the fantasy play of black preschool children. *Child Development*, 20, 807-814.
- Neuman, S. B. & K. Roskos (1991). Peers as literacy informants: A description of young children's literacy conversation in play.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6, 233-248.
- Nicolopoulou, A.(1993). Play, cognitive development and the social world: Piaget, Vygotsky, and beyond. *Human Development*, 36, 1-23.
- Rogoff, B.(1990). *Apprenticeship in thinking: Cognitive development in social context*. New York: Oxford University.
- Roskos, K. & S. B. Neuman(1993). Descriptive observations of adults' facilitation of literacy in young children's play.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8, 77-97.
- Schetz, K. F. & A. J. Stremmel(1994). Teacher-assisted computer implementation: A Vygotskian perspective, *Early Education and Review*, 5(1), 18-26.
- Slaughter, D. T. & J. Dombrowski(1989). Cultural continuities and discontinuities: Impact on social and pretend play, The ecological context of children's play, Bloch, M. N. & Pellegrini, D.(eds.), 282-310.
- Spradly, J. P.(1980). *Participant observation*. Harcourt Brace Jovanovich College Publishers.
- Tharp, R. G., & R. Gallimore(1988). *Rousing minds to lif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Tudge, J. R. (1992). Process and consequences of peer collaboration of Vygotskian analysis. *Child Development*, 63, 1364-1379.
- Tudge, J. R. H., & P. A. Winterhoff(1993). Vygotsky, Piaget, and Bandura: Perspectives on the relations between the social world and cognitive development. *Human Development*, 36, 61-81.
- Vygotsky, L. S. (1978). *Mind in society: The development of higher psychological Processes*.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 Vygotsky, L. S. (1987). Thinking and speech. In R. W. Rieber & A. S. Carton(Eds.). *The collected works of L. S. Vygotsky: Vol. 1, Problems of general*

*psychology* (pp.39-285). New York:  
Plenum Press.  
Wood, D., J. S. Bruner & G. Ross(1976). The

role of tutoring in problem solving.  
*Journal of Child Psychol. Psychiat.ry*,  
17, 89-100.